

참여소통형 통일교육 방법론 연구

: 퍼실리테이션의 적용방안

김지영
(통일교육원)

참여소통형 통일교육 방법론 연구

: 퍼실리테이션의 적용방안

김 지 영 (통일교육원)

목 차

I. 머리말	IV. 퍼실리테이션의 개념과 유형
II. 퍼실리테이션의 이론적 배경	V. 퍼실리테이션의 적용방안
III.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VI. 맺음말

국문요약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학습자들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기보다 자기주도형 참여방식을 통해 통일교육을 받고자 한다.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선호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이다.

새로운 통일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통일교육방법의 체계적인 이론화가 필요하다. 통일교육방법의 이론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둘째, 새로운 통일교육방법의 다양한 경험연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방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의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

일교육의 구체적인 모델 및 한계, 발전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자기주도형 학습방법론이라 평가받는 퍼실리테이션 학습기법(learning facilitation)의 통일교육에 대한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퍼실리테이션 교육방법론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문제점을 고찰한다. 셋째, 통일교육원 교과과정에 퍼실리테이션 적용방안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퍼실리테이션 통일교육방법론의 한계와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통일교육원, 자기주도형 학습방법론, 패러다임, 퍼실리테이션 학습(learning facilitation)

I. 머리말

1. 문제제기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시대의 도래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을 기반한 기계화 혁명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활용한 대량 생산 혁명이다. 지구화화 더불어 시작한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화 혁명이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초지능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예견된다.¹⁾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다. 즉,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상호 연결된 유무선 인터넷 망을 통해 인공지능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여 행동하게 될 것이다.

교육 환경에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면 사물과 학습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인터랙티브한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 수준 등에 따른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빅데이터는 교육 환경에 적용되어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관한 데이터를 추적하고, 학습 수준을 분석하여 각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 목표, 전략 및 내용 등 맞춤형·적응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²⁾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은 교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³⁾ 4차 산업혁명은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 크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혁명적인 변화로 규정하였다. 인공지능은 최적의 개인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하거나, 교육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달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람인 교사가 할 수 있는 지식 교육 서비스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영역에서도 정보전달을 위한 일방향의 강의방식보다 메시지 전달을 위한 양방향의 자기주도형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⁴⁾ 일반 교육뿐만이 아니라 통일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1) 안종배,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2)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 기술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및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테크놀로지를 통해 교실에서 직접 가상의 현장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원자, 자기장, 인간의 신체 등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는 실감 체험 학습이 가능하다.

3) 최근 수십년간 고등교육의 이론과 적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Boud, 1988; Heron, 1993; Knowlges, 1980). 이러한 변화는 아동, 성인, 평생학습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의 기본적인 매우 단순한 명제는 학생들의 학습은 기본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체적인 지성의 연습, 선택 그리고 흥미에 의존하고 있다.

4) Aakhus, Mark, Mark Adkins, and Melissa Glynn. “Layers of learning: Facilitation in the distributed classroom.” System Sciences, 1997, Proceedings of the Thirtie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l. 2. IEEE, 1997. Gow, Lyn, and David Kember. “Conceptions of teaching and their relationship to student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3.1 (1993): 20-23. Mizoguchi, Riichiro, Pierre Dillenbourg, and Zhiting Zhu. Learning by effective utilization of technologies: Facilitating intercultural understanding. Vol. 151. IOS Press, 2006.



〈그림 1〉 산업혁명의 변화 단계와 4차 산업혁명, 자료: 안종배(1917, 22).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 미래 강의자는 지식전달자가 아니다.⁵⁾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지식전달을 더 이상 강사로부터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 미디어 콘텐츠와 인터넷을 통해 주도적인 지식학습의 다양성이 생겼다.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출현은 개별학습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있다. 강사의 정보 기억용량과 미디어를 통한 전달방식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경쟁하기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강사의 핵심역할이 지식전달자에서 동기부여자로 바뀌고 있다. 학습자가 정서적 이성적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으로 자료를 찾아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교육은 여전히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초중고교는 자기주도형 교육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 토의, 역할극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⁶⁾ 학교교육의 변화는 학교 내의 통일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아직도 입시중심교육과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학습자들의 북한, 한반도 주변상황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성과와 평가도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의 다양한 성인교육기관의 통일교육 또한 정보전달을 위한 일방향의 강의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5) 박영숙, et al. 『유엔 미래 보고서 2040』. 교보문고, 2014.

6) 이지경.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Learning: PBL)의 통일교육 방법론 연구: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학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서석사회과학논총3.2 (2010): 95-133. Mohamad, Nabishah, et al. “Problem Based Learning Facilitation: New Challenges to Higher Education Educators.” International Medical Journal16.4 (2009).

〈표 1〉 참여소통형 통일교육 방안의 필요성

	통일교육 목표변화	통일에 관련한 단순한 지식전달 →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과 미래비전공유
통일 교육 환경 변화	정보접근성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시간과 공간 제약없는 개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수업방식의 다양성 요구	일방향 강의가 아닌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소통형 수업을 요구하는 교육생의 증가
	교육 패러다임 변화	4차 산업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인교육 방식 소통형 패러다임의 증가

2. 연구목적

통일교육원도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통일교육원의 학습자 강의평가 분석자료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일방향의 강의식 수업방식보다 다양한 자기주도형 수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정보를 얻기보다는 자기주도형 참여방식을 통해 통일과 북한문제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새로운 통일교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자기주도형 학습방법론이라 평가받는 퍼실리테이션 학습기법(learning facilitation)을 통일교육에 적용할 때 효과 및 방법, 한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원의 성인통일교육 과정의 유형별 특징을 고찰하고, 그에 맞는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교육디자인과 강의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통일교육방법의 이론화와 체계화를 위해서 다음의 연구방법을 채택한다. 본 연구논문은 문헌연구와 참여관찰을 방법을 택할 것이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적 배경은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한다. 통일교육방법과 퍼실리테이션 학습방법을 연구한 한국어와 영어 단행본 및 연구논문을 고찰할 것이다. 통일교육방법론에 관해서는 한국어 문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원 교육생의 특징과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던 통일교육원 교수들의 자문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 통일교육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것이다. 3장에서는 통일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패러다임변화를 설명한다. 특히 변화하는 패러다임과 통일교육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4장은 퍼실리테이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한다. 5장은 퍼실리테이션 통일교육 기법의 실제적 적용 모델을 제시한다. 통일교육원 교육생의 직군별 특징과 그에 따른 선별적 퍼실리테이션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은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퍼실리테이션의 이론적 배경: 구성주의적 교육방법

기존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교육내용에 관한 이론적 분석연구들이었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의 담론분석, 통일정책의 통일교육에 관한 영향, 독일통일교육의 효과성 분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⁷⁾ 하지만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방법론의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퍼실리테이션을 통일교육에 적용하려면 기술발전과 패러다임의 변화 및 교육방법론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상황의 변화와 교육방법론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통일교육방법론의 이론화와 체계화가 매우 중요하다.

199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교육분야에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토의하고, 체험함으로써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액션러닝, 러닝퍼실리테이션 등의 참여소통형 강의가 확산되고 있다. 퍼실리테이션 학습기법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의 획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참여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의식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학습기법이다. 퍼실리테이션 학습기법은 교수자가 수업을 학습자 주도형으로 설계하는데 중점을 둔다. 실제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교수자의 주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습자들이 그룹을 이루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상호토론과 토의과정을 거쳐 자기 인식과 행동을 변화하는 방식이다.

퍼실리테이션 교육방법은 경영, 농업, 수학, 공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⁸⁾ 하지만 아직까지 통일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과거 통일교육의 주안점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개인에게 전달하는데 두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남북관계의 화해와 갈등이 반복되면서, 통일의 의미는 개인들에게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들은 반공, 안보, 평화, 경제, 민족 등의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통일을 받아들였다.⁹⁾ 따라서 이 시기 통일교육의 주안점은 통일이 꼭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국가단위의 경제적 필요성에 있었다.

하지만 4차 산업시대의 도래와 함께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은 정보홍수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는 단기간에 잊혀지거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경제상황의 변화와 남북관계와 대립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통일의 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전

7) 김국현. 통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편견 교육. 인간사랑, (2004). 김도태, and 이경화. “통일교육 개선방향.” 통일연구논총6.1 (1997): 1-22. 김창희. “제5 장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분석과 활성화 방안.” 통일전략7.2 (2007): 157-189. 김창환. “통일 전 동, 서독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과 실상.” 교육의 이론과 실천8.1 (2003): 17-45. 박찬석. “연구논문: 통일교육에 있어서의 민족, 평화, 시민에 대한 논의.” 시민교육연구33. 단일호(2001): 141-162. 변중현. “청소년의 통일의식과 학교 통일교육의 진화.” 윤리교육연구29. 단일호(2013): 165-186. 변창구. “제1 장 한국 통일교육의 쟁점과 방향.” 통일전략10.2 (2010): 9-35.

8) 이연주, and 이희수. “농업교육강사를 위한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6.1, 2014, 27-47; 이연주, and 이희수, “퍼실리테이터의 성찰학습수준이 비판적 성찰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7.2, 2015, 123-148; 백수정, and 이희수. “성인교육 퍼실리테이터 역량 개발.” 『평생학습사회』 8.3, 2012, 59-85; 하원준. “공공문화예술 콘텐츠의 사회공헌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역할 분석과 방향 제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16, 64-69.

9) 박광기. “한반도 통일비전과 통일교육의 재인식.” 『정치정보연구』 15.1, 2012.06, 187-214; 박광득, “제4장 통일교육 목표와 내용의 딜레마와 해결과제.” 『통일전략』 13.3, 2013.7, 119-157;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16.2, 2007.12, 285-306.

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개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장기적인 통일인식 변화를 위해선 자기주도적인 교육방법의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인식의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통일교육 정책, 담론, 교육 콘텐츠의 생산만이 아니다. 국민들의 통일인식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방법이 오히려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새로운 통일교육은 개인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통일에 대한 정보와 정서적 인식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제 자기주도형 통일교육의 이론적 배경인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대해 살펴보자. 구성주의는 기존의 일방향 강의 교육법의 이론적 배경인 객관주의 학습이론과 대척점을 이룬다. 객관주의 학습이론은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한다. 따라서 객관주의 학습이론에 의하면 획일화된 가치를 효과적으로 개인들이 습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시대는 획일화된 가치보다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획일화된 지식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따라서 기존 2차 산업사회가 지향하던 획일적인 가치 전달에서 벗어나 지식을 주도적으로 구성해 가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객관주의 학습이론은 절대적인 외부 실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객관주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외부에 존재하는 물질을 다 동일한 것으로 인식한다. 획일화된 외부 실체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인식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길거리의 꽃들과 밤하늘의 별이 그냥 동일한 꽃과 별로 인식된다. 개인적인 시각이나 후각의 인지능력, 경험이나 기억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인식된다.

이와 다르게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개인들이 외부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객관주의 이론은 외부 실체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비중을 둔다면,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학습자 개개인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의미가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즉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학습자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밤하늘의 별들이 개개인의 경험과 기억으로 인해 다른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 도시조명과 대기오염으로 인해 별을 볼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별이 깨끗한 자연환경의 상징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별모양의 사탕을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달콤한 맛을 떠올리게 한다. 꽃에 대한 의미도 개인들이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다. 시멘트 바닥을 뚫고 올라온 민들레가 강인한 자연을 상징하기도 하고, 붉은 장미는 연인들에게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인이 꽃과 별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남북관계와 통일을 인식하는 방식도 다르다. 한국전쟁에 경험했던 노년층은 안보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나 통일을 인식할 수 있으며, 민주화를 주도했던 40-50대는 남북관계와 통일을 인권이나 평화의 관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대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이 남북관계나 통일을 인식하는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효과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해 주관적인 자기주도적인 인식방식을 강조한다.

구성주의 이론은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분된다.¹⁰⁾ 인지적 구성주의는 인지

10) 구성주의 이론은 스위스 심리학자 (피아제) Jean Piaget와 러시아 심리학자 비고츠키(Lev S. Vygotsky)의 인식론을 기반으로 진화하였다. 최양희, 고은영.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반한 디자인교육 방안 연구.” 『디자인 지식저널』

과정을 통해 아동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지식구조가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외부세계에서 자신의 내부로 들어온 자극을 능동적인 동화-조절 기능에 의해 구성 및 재구성하는 과정이다.¹¹⁾ 또한 인지발달은 학습자의 내부에서 형성한 지식이나 정보를 내재화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사회적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학습방법은 학습자가 교사나 동료를 포함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주도적인 방식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한다.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대상이 내면에서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인 것이다. 피아제(Piaget)과 비고스키(Vygotsky)이론에 기반한 구성주의 이론은 자기스스로의 인지작용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두 개의 구성주의 학습이론 모두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고 주장한다.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은 4차 산업시대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일교육 방법론의 이론적 기반이다. 과거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립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객관주의 학습이론에 기반하여 안보, 평화, 경제, 민족 등의 거대 담론을 개인들에게 통일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고, 남북관계의 상황이 협력과 갈등의 반복하고 있다. 개인들은 확립적이고 피동적으로 통일을 인식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현 시대 통일교육의 핵심은 개인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긍정적인 통일인식을 내재화할 수 있는 방법론의 고안이다. 다시 정리하면, 통일교육은 이제 확립화된 통일에 대한 지식과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개인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통일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Ⅲ.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1. 통일교육법안과 통일교육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되어 있다.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이 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서 첫째,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며”, 둘째,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남북한 통일을 위해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28, 2013. 12, 187-188.

11)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의 평형화 과정을 통해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인지구조를 더욱 발전시킨다. 기존의 인지구조에 새로운 사건들을 통합시키는 과정을 동화라 정의한다. 기존의 인지과정을 새로운 사건에 알맞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조절이라고 규정한다. 이 두 개의 기능은 서로 상호보완적이다. 하지만 동화와 조절 기능의 평형이 유지되지 않을 때 인지적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과정이 발생한다. 최양희, 고은영.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반한 디자인교육 방안 연구.” 『디자인 지식저널』 28, 2013. 12, 187-188.

2. 통일정책과 통일교육방향의 변화

통일교육의 명칭과 교육내용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한의 관계변화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아왔다.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명칭이 변화되면서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¹²⁾

남북한의 분단 이후 1980년대 초까지 통일교육의 내용과 목표는 냉전체제라는 국제관계의 기본 틀 속에서 형성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여 주로 반공교육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우리의 강력한 안보관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1970년대에 6·29 선언이나 7·4 공동선언과 같이 남북관계의 변화가 통일교육의 내용과 목표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당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지속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의 수준에서 크게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1990년대 통일교육은 냉전체제의 변화와 독일통일, 동구권의 붕괴 및 구소련 체제의 변화 등 국제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반공교육’에서 ‘통일안보교육’, 그리고 ‘통일교육’으로 명칭과 내용이 변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를 거치면서 변화된 통일교육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즉, 북한을 통일이 되어야 할 대상에서 우리와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은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서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타낸 것으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이명박 정부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목표의 내용으로 ‘미래지향적 통일관’, ‘균형 있는 대북관’ 및 ‘건전한 안보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알고 통일미래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임을 인식한다.”고 설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계승했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미래지향적 통일관’과 ‘균형 있는 대북관’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통일교육의 개념

‘통일’의 개념 정의에 따라서 통일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따라 ‘교육’을 받는 대상, 내용, 방법들이 달라진다. ‘통일’을 연구하는 핵심학문인 정치학과 사회학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사회, 사회과 교육, 교육학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교과교육학의 연구에서 내용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¹⁴⁾

12) 한만길,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허문영·권오국 외. (통일교육: 과거, 현재, 미래) (통일교육원, 2011). p. 3 이하 참조.

13) 박광기 외 공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2005) 참조.

통일교육을 연구하고 논의할 때 현실인식과 통일에 대한 미래 비전이 있어야 한다. 통일과 관련한 국내외의 주변상황에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통일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공할 때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규범적 당위성과 현실인식을 함께 가질 때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다.

통일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통일에 관한 교육’, ‘통일을 위한 교육’ 그리고 ‘통일 이후 교육’.¹⁴⁾

첫째, ‘통일에 관한 교육’은 개념정의에 대한 이해와 개념에서 도출된 규범적인 내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개념 정의에 관련된 내용은 통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통일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규범적인 내용은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통일이 왜 필요한지, 통일을 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통일에 관한 교육’은 기본 방향에서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해당한다.

둘째, ‘통일을 위한 교육’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현실적인 내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통일정책과 전략,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생각해봐야 할 국내외 안보상황,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 북한의 객관적인 현실상황에 대한 이해 등이 있다.

셋째, ‘통일 이후 교육’은 통일한국이 당면하게 될 사회 통합의 과제를 위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 교육은 미래의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민주주의 시민교육, 사회주의 체제만을 경험했던 시민들에 대한 시장경제, 통일한국의 새로운 법과 제도 등이 ‘통일 이후 교육’의 주요내용이 될 수 있다.

4. 통일교육의 특징: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의 공감

남북한의 시민들이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통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분단된 현실에서 통일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는 불확실한 상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교육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전망, 그리고 비전을 담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시민들이 분단에 대한 명확한 현실인식과 긍정적인 미래전망을 바탕으로 미래통일비전의 수립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일교육이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닌 강력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 교육’과 ‘통일을 위한 교육’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통일한국의 실현이라는 확고한 전망을 갖고, 통일한국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비전’(Vision)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 가능성, 필요성을 포괄하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미래통일비전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긍정적인 통일전망과 실현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비전의 내재화는 통일에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과는 다르다. 물론 비전을 내재화하는데 있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현실상황에 대한 이해는

14) 박광기, “한반도 통일비전과 통일교육의 재인식,” 『정치정보연구』15.1, 2012.06, 187-214.

15) 박광기, “새로운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성 제고: 통일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어진 현실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과 통일에 대한 비전을 내재화하는 과정이다. 단순히 정보전달을 통해서만 미래비전을 능동적으로 획득하기는 어렵다.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 개개인들이 인식과정을 거쳐 통일미래에 대한 당위성, 가능성, 필요성을 자기주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미래비전을 수립할 때는 실현가능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까지 제시해야 한다. 통일비전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방법을 전환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5. 통일교육의 문제점

현재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이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많은 교육현장에는 여전히 과거 냉전시대의 통일교육 패러다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교육자뿐만 아니라 학습자들도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다. 특히 냉전시대를 경험한 중장년층과 남북대결 상황만을 경험한 많은 수의 20대가 이러한 패러다임에 갇혀있다.¹⁶⁾ 여전히 이 문제는 통일교육을 실행하는 교습자들의 패러다임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교수-학습자간의 상호토론을 통한 자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통일교육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일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¹⁷⁾

둘째, 보여주기 위한 통일교육의 문제이다. 교수자가 단기성 실적 향상을 위해 통일교육을 보여주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형식과 실적 채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교육방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하다. 실적 위주의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교수자는 학습자의 수동적인 학습태도에서 통일교육의 문제를 찾는다. 학습자의 피동성을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일교육방법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새로운 교수법 활용하기 위해, 본 논문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4장에서 퍼실리테이션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살펴보고, 5장에서 통일교육에 퍼실리테이션 학습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6) 박광기, “한반도 통일비전과 통일교육의 재인식.” 『정치정보연구』15.1, 2012.06, 187-214.

17)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16.2, 2007.12, 285-306.

IV.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개념과 유형

1. 퍼실리테이션 개념

퍼실리테이션 러닝은 대표적인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한 학습방법론이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facilitate’를 ‘make (an action or process) easy or easier’, 즉 ‘어떤 행위나 과정을 쉽게 혹은 더 쉽게 해주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easy’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facilis’에서 온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의 우리말 번역어는 ‘촉진’이다. 촉진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퍼실리테이션은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 된다.¹⁸⁾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정의한 다양한 퍼실리테이션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 집단이나 조직이 협업과 시너지를 창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를 위하여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으로 집단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한쪽 편에서 서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¹⁹⁾
- 집단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여 양질의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도록 구조와 절차를 형성하는 과정, 다른 사람들이 최상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²⁰⁾
- 최고의 사고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를 위하여 개인이 최상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완전한 수준의 참여를 끌어내고, 서로 이해하며,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도록 발전시키는 것.²¹⁾

협회의 퍼실리테이션이란 조직 내에서 미팅이나 워크숍 등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활동을 뜻한다. 광의의 퍼실리테이션이란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하고 혁신과제들의 문제해결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회의나 미팅을 하는 목적도 그룹의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협회의 퍼실리테이션 개념을 포함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룹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팀웍을 이끌어 내며, 그룹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실제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은 문제해결을 위한 워크숍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주

18) 한국의 권위있는 퍼실리테이션 교육기관인 쿠파실리테이션의 홈페이지 ‘이론’ 부분에서 인용하였다. “무엇을 쉽게 해주느냐에 따라 영어권 국가에서의 퍼실리테이션이란 말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놀랍게도 불법무기 거래 또는 인신매매가 잘 이루어지도록 개입하는 일도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부른다. 장애인의 수업에 보조자로 참여하여 그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입양이 성사되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것,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수화 등을 통하여 돕는 것, 집단치료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잘 알아채도록 도와주는 활동 등에 모두 퍼실리테이션이란 말을 사용한다.”

http://www.koofacilitation.kr/sub/knowledge/?mode=view&bid=23&rs_type=&rs_keyword=&rs_cate=&ridx=60&page=2

19) Straus, David, and Michael Doyle. “The architect as facilitator: A new role.”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31.4 (1978): 13-17.

20) Bens, Ingrid. *Facilitating with ease!: A step-by-step guidebook with customizable worksheets on CD-ROM*. Jossey-Bass, 1997.

21) Kaner, Sam. *Facilitator’s guide to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John Wiley & Sons, 2014.

체로 참여해서 조직의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을 도출하며, 의사결정을 한다. 퍼실리테이션 유형의 분류 기준은 먼저 문제해결이나 합의형성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지향하는가, 학습이나 성장 등 내면적인 성과를 추구하는가, 조직이나 사회적 성과를 추구하는가 그리고 개인적인 성과를 추구하는가이다.

2. 성인교육과 퍼실리테이션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에 따라 구성원 참여의 적극성 및 문제해결의 정도가 결정된다.²²⁾ 집단이 모여서 문제를 정의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집단의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만들고,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촉진할 주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주체를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한다. 퍼실리테이터는 성인학습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촉진자이자 학습자들의 동기유발자이며, 학습방향의 안내자이다. 주제와 내용 중심인 아동학습자에 비해 성인학습자들은 문제해결과 목표달성 중심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문제해결과과정에서 성인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²³⁾

성인들의 학습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퍼실리테이터를 주목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성인학습기관의 교육담당자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²⁴⁾ 성인학습자를 교육하는 담당자와 성인들의 학습활동과 연관된 모든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자를 성인교육자라고 규정한다.²⁵⁾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정서적 측면의 요구에 반응하고,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성인교육자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형 학습을 촉진하는 행위자라고 규정한다.²⁶⁾ 크랜튼(Cranton)은 성인교육자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핵심역할로 정의하기도 한다.²⁷⁾ 퍼실리테이터 교수자는 성인학습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주체이며,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성인학습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성인학습자들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학습자에게 학습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²⁸⁾

22) 권두승, “성인 교육자의 멘토링 척도개발과 교육적 시사점,” 『평생교육학연구』, 2003, 9 (2): 169 ~ 193

23) 권두승, 『성인교육자론』, 교육과학사, 2006

24) Knowles, M. S., 2005, The adult learner: The definitive classic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lsevier Science and Technology Books; Nadler, L., 1989, Developing human resources, Jossey-Bass

25) 권두승, “성인 교육자의 멘토링 척도개발과 교육적 시사점,” 『평생교육학연구』, 2003, 9 (2): 169 ~ 193.

26) 정민승, “평생학습 패러다임에서의 사회교육자: 위상과 역할,” 『평생교육학연구』, 2002, 8 (2) : 41 ~ 59

27) Cranton, Patricia. “Self-directed and transformative instruct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5.6 (1994): 726-744.

28) 김미정, 유영만 공저, 『액션러닝과 조직변화 : 변화를 유도하는 학습, 실천을 촉구하는 학습』, 교육 과학사, 2003.

3. 퍼실리테이션의 유형과 통일교육

가. 퍼실리테이션의 유형

퍼실리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체험학습형 퍼실리테이션**: 참가자들이 같은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션이다. 자연교육이나 환경교육 워크숍에 많이 사용된다.
- **자기혁신형 퍼실리테이션**: 개인의 다양한 능력의 성장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퍼실리테이션이다. 참가자 상호간의 관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참가자가 내적 잠재능력을 자각하게 된다.
- **자기 표현형 퍼실리테이션**: 연극이나 미술 등 예술활동 분야에서 구성원간의 혹은 연기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서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 내는 퍼실리테이션이다.
- **문제해결형 퍼실리테이션**: 일반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퍼실리테이션 유형이다.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이다. 조직 비전 및 전략의 개발, 구성원의 수행의지 향상, 이해관계자들과 이해 조정 및 갈등관리, 그리고 영업 마케팅 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 **합의형성형 퍼실리테이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의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합의를 형성해 가는 퍼실리테이션 유형이다. 사회단체나 학술집단이 주로 활용한다. 합의를 통한 결론뿐만이 아니라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둔다.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차이로부터 논의가 심각하게 대립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교육연수형 퍼실리테이션**: 다양한 영역의 교육활동을 위해 폭넓게 활용되는 퍼실리테이션 유형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학습자로 하여금 경험하고, 생각하고, 경험한 결과를 상호교류하면서 지식의 외연을 스스로 넓혀 나가는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참여자의 자발적 학습을 촉진한다.

나. 퍼실리테이션의 유형과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커리큘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위의 6가지 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연수형 유형은 기본과목인 대북정책, 북한동향, 한반도 주변정세를 재구성해서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형은 통일비전과 관련한 과목에 적용하여 학습자들이 각 단위에서 통일비전을 수립하고, 교육에 대한 수행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기표현형 퍼실리테이션은 이탈주민이나 실향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거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자기이해를 표현하여 통일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UCC 만들기 수업이나, 연극을 활용한 수업이 그에 해당한다. 합의형성형 퍼실리테이션은 대북제재 시기의 대북인도지원, 남북 경제협력과 안보 딜레마 등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가치관의 차이를 좁히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퍼실리테이션은 집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집단의 비전을 수립하거나, 집단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거나,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일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의 목적은 집단의 공동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워크숍은 그 효과를 높이거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순히 집단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퍼실리테이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사학생 1대 1로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집단으로 만들고, 상호경쟁과 학습 분위기를 통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 일뿐 학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퍼실리테이션은 극히 일부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퍼실리테이션의 적용 목적이 학습집단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 개개인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 집단의 목표를 위해 교육생 개개인의 주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학습비전을 세워 실현하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교육생의 몰입도를 높이고 상호간의 관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방법으로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참여식 수업의 경우 외관상으로 퍼실리테이션에 포함하고, 특히 이를 러닝 퍼실리테이션(learning facilit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V. 퍼실리테이션의 적용방안

이 장은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실제 수업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회의에 직접 참여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 제시하는 예상 문제점은 통일교육원의 특수성과 일반 통일교육현장에서도 중복되는 보편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통일교육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3절은 일반적인 통일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1. 참여소통형 교육의 예상문제점과 해결방안²⁹⁾

첫 번째 문제인 시설부분은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2018년 예산에 근거하여, 일방향 수업에 맞게 준비된 시설은 모듈형 수업을 위한 강의실의 책걸상 배치는 모듈형으로 재배치하기로 하였다. IT기기 활용을 위한 인프라 부족은,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 2018년 수업일정예산 큰 무리 없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을 위한 문구(포스트잇, 보드펜, 전지 등)도 예산이 확보되어 2018년 참여소통형 교과과정에 준비될 예정이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생의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의 혼재다. 통일교육원의 교육생의 연령대와 직업군이 다양하다. 통일교육원에는 4차 산업시대 교육을 받는 통일동아리 청소년(10대), 3차 산업시대 교육을 받은 예비교사반과 외국유학생(20대), 2차 산업시대교육을 받은 공무원반, 교장·교감반, 사회단체반 (30대부터 60대까지)이 교육을 받는다. 4차 산업시대의 교육을 하는 교사반의 30대 이상의 교사 교육생들도 대부분 2차 산업시대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이다.

다시 정리하면, 통일교육원의 교육생들은 일방향의 주입식 교육방법에 익숙한 세대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경험의 축적과 개선방안 연구가

29) 통일교육원에서 새로운 참여소통형 교육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3차례의 교수회의와 운영지원과를 포함하는 워크숍을 거쳤다. 직접 참여한 회의와 워크숍 및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표2)

필요하며, 4차 산업시대의 교육방법이라고 규정하는 자기주도형 학습방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수업방식의 사전공지, 사이버 강의활용,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고안, 참여소통 수업의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 수업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운영진의 참여소통형 개념 및 경험 부족이다. 새로운 수업방식으로 전환하기 기간에는 교수진과 과정운영진 간의 긴밀한 소통, 참여소통형 수업에 직접 참여 등의 방법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과정운영진의 역할을 확대하여 보조퍼실리테이터로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표 2〉 참여소통형 수업 적용에 따른 통일교육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제점	해결방안
시설	일방향 강의실 배치	모듬형 자리배치 강의실 확보
	IT 기기 부족	와이파이, 학습자별 태블릿 피씨 설치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피씨)의 지참 사전준비 공지
	퍼실리테이션 도구 부족	수업에 필요한 도구 확보
커리큘럼	일회성 80분 수업의 한계 (대학수업 3시간씩 16주 vs 1회 3시간)	구체적인 단계별 참여소통형 수업디자인 참여소통형 특성화반 커리큘럼 개발 80분형, 120분형, 180분형 수업별 차별화
교육생	수업관련 배경지식의 부족 (통일과 북한에 대한 지식 부족)	사이버 강의 사전학습 후 교육원 수업참여 배경지식의 효율적 전달방안 고민
	참여소통형 수업에 경험부재 (고연령, 일방향 소통형 직군)	교육생 특성 맞춤형 수업디자인 적용방안연구 다양한 도구활용과 아이스브레이킹 방법연구
	비학습적(수동형) 교육참여의 목적 (견학, 승진, 점수)	수업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수료증, 참가상) 통일교육이 가지는 의미 전달 방법연구
	상호소통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대중에게 자기 의견 표현에 대한 거부감)	수업방식에 대한 사전공지를 통한 정서적 준비 정서처리 방법론 연구 상호소통 경험에 따른 수업방식 운영
운영진	참여소통형 수업 개념 및 경험 부족	운영진의 참여소통형 학습방법 특강에 참여 퍼실리테이션 강사초청, 퍼실리테이션 특가에 직접참여 교수진과 긴밀한 소통

2. 퍼실리테이션 교육의 3단계 재구성

가. 통일교육원 교육생의 유형

교육생의 유형분석은 수업설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새로운 참여소통 수업을 위한 회의와 워크숍 과정에서 가장 참여한 문제는 통일교육원의 학습자들이 과연 참여소통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앞 절에서도 원인을 밝혔듯이 다양한 연령과 직군의 구성원들은 각

자의 성장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방향 수업에 익숙한 연령층과 직업군이 존재한다. 학습자 유형화는 참여소통 수업의 단계별 적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2016-2017년 동안 통일교육원에서 강의한 경험과 회의 및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교육생은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소통 극복형 교육생이다. 이 그룹은 수업에 참여하는 목표도 수동적이며, 참여소통 수업을 경험해 본적도 없다. 따라서 이 그룹에 대한 퍼실리테이션 수업방식은 가장 낮은 단계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강의식 수업에 난이도가 다른 질문을 추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그룹에 적용하는 퍼실리테이션 수업의 목표는 개인의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자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두 번째, 소통 적응형 교육생은 학습에 대한 교육 목표가 명확하나, 참여소통 수업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그룹이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에 속하며, 직업군은 일반교사반, 교장(감)반, 고위공무원반, 시민사회단체반이 다 포함될 수 있다. 이 교육생 그룹은 모둠토의와 강의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그룹은 참여소통수업에서 다른 학생들과 상호의사소통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관점을 학습할 수 있다.

세 번째, 소통 주도형 교육생은 학습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소통형 수업에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과 청년층이다. 10대 통일리더캠프 동아리 회원, 20대의 예비교사반, 20대-30대 초반의 교사, 사회단체반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 그룹은 소통을 주도할 수 있어, 좀 더 자기주도적인 모둠내 상호토론, 역할극, 자기비전 및 실천과제 도출까지 시도해 볼 만 하다.

〈표 3〉 통일교육원 교육생별 퍼실리테이션 유형 제시

구 분	소통 극복형 교육생	소통 적응형 교육생	소통 주도형 교육생
수업참여 목표	수동형 교육목표 (의무, 견학, 점수)	능동형 교육목표 (학습)	능동형 교육목표 (학습)
참여소통 수업경험	참여소통형 경험부재	참여소통형 경험 부족	참여소통형 경험이 풍부
정서 상태	참여소통에 거부감	참여소통에 익숙하지 않음	참여소통에 안정감
직업	군인 실무공무원	종교 시민단체 교장/교감 일반교사 (중장년층) 고위공무원	10대 청소년 예비교사 일반교사 (청장년층) 종교단체
수업유형	질문형 퍼실리테이션	모둠형 퍼실리테이션	활동형 퍼실리테이션
수업목표	자기인식 질문	인식이나 관점의 변화	인식변화 후 실천

나. 퍼실리테이션의 유형화

3개 유형의 교육생 그룹에 따라 퍼실리테이션도 3개로 분류해 보았다.

첫 번째 방식은 질문형 퍼실리테이션이다. 이 수업은 모둠원들간의 소통없이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80분의 수업시간에 소화할 수 있으며, 이 수업을 위해선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은 교수는 편안하게 학습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정서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질문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도입 부분에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자신의 대답이 틀릴까봐 적극적으로 상호소통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입부분에서 편하게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고, 학습자들이 질의 응답의 분위기에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되면, 질문의 난이도를 학습자 스스로의 인식과 관점을 반추해볼 수 있는 질문으로 이동해나가면 된다. 따라서 질문형 퍼실리테이션 방식의 핵심은 학습자들이 적극적이고,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질문내용과 질문의 적절한 배치시점을 포함한 강의설계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모둠형 퍼실리테이션이다. 이 방식은 학습자 모둠구성원끼리 활발하게 상호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수업도입부에 학습자 간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지는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둠형 퍼실리테이션은 도입부의 아이스브레이크 과정을 위한 도구와 아이디어가 중요하며, 1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호간의 자연스런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업주제 관련한 흥미있는 동영상이나 그림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퍼실리테이터인 교수자는 상호소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모둠에 개입하여, 쉬운 질문이나 편안한 농담으로 정서 처리를 하는 일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모둠별 토의나 토론에서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의 핵심메시지를 정리하고 강조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세 번째 방식은 활동형 퍼실리테이션이다. 이 방식은 모둠형 방식보다 좀 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호이해와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간을 적게 배치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 방식 적용의 주안점은 전체적인 시간배분과 핵심메시지 전달이다. 역할극의 도입이나 자기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도하는 모둠별 시간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전체 수업의 안정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질문형과 모둠형 방식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표 4〉 3가지 퍼실리테이션 유형

	질문형 퍼실리테이션	모둠형 퍼실리테이션	활동형 퍼실리테이션
수업 방식	직접질문 + 강사와 학생 질의응답	도구사용 + 토의 및 토론	도구사용 + 토의 및 토론 + 학생결과물도출
수업 길이	80분형 수업	120분형 수업	180분형 수업
수업 준비	질문강의형 수업디자인 분위기 전환용 질문 핵심 메시지 관련 질문 질문과 연관된 강의안 준비	강의+세미나 수업디자인 세미나 참여유도 방안 주제별 세미나 질문수립 세미나와 연관된 강의안 준비	강의+세미나+활동 수업디자인 활동에 참여유도 방안 활동별 미션수립 활동과 연관된 강의안 준비
도입	질의응답을 통한 관심주제 도출	심도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본 수업	질문형 강의	강의 + 토의 및 토론	역할극, 자기비전 및 실천과제 도출
마무리	메시지 정리 및 강조	메시지 정리 및 강조	공감에 대한 실천방안

그렇다면 강의방식의 수업과 퍼실리테이션 수업방식을 진행하는 교수자의 역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음 절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다루고자 한다.(표 5)

3. 퍼실리테이션 교수자의 역할

〈표 5〉 강의식 수업과 참여소통형 수업의 차이점

	강의식 수업	참여소통형 수업
교육생 참여방식	수동적 들기와 필기	질문 상호의견교환 도구사용한 자기표현 역할 연기
수업목표	지식전달	공감 후 인식과 행동변화(통일비전공유)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존중과 교환 연습 (통일역량강화)
교수자의 역할	정보의 효과적 주입	정보의 자발적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정보교환 촉진 정서교환 촉진

첫째, 교육생들의 참여방식은 정보처리만을 하거나 정서처리까지 포함한다. 강의식 수업에서 교육생들은 수동적인 강의청취와 필기만 하면 되었다. 물론 강의식 수업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이 부가되기도 한다. 참여소통형 수업에서 교육생들은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대답, 다른 교육생들과의 상호소통, 도구(IT도구, 그림카드, 포스트잇)를 활용해서 자기의사를 표현, 좀 더 나아가 연기까지도 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생들이 수업시간이 대중들 속에서 자기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둘째, 수업의 목표가 다르게 나타난다. 강의식 수업의 목표는 지식의 효과적인 전달이다. 이와 달리 참여소통형 수업은 자기주도적인 상호소통 과정을 통해 수업에서 개인의 인식과 행동변화까지 기대한다.

셋째, 참여소통형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자는 정서처리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강의식 수업이 단순히 정보의 효과적 전달만을 목표로 한다면, 참여소통형 수업은 정보와 정서의 처리, 자발적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한다. 수업을 운영하는 행위자는 교수 한 사람이 아니다. 표6에서 보여지듯이 교수자는 전체 퍼실리테이션 수업을 계획 및 실행하고, 학습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다. 보조 퍼실리테이터는 실제 수업에서 핵심퍼실리테이터를 보좌하는 보조진행자와 교육과정의 준비와 수업결과물을 정리하는 교육과정 운영요원이다. 따라서 보조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운영진의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표 6〉 퍼실리테이터의 구분과 역할

퍼실리테이터의 구분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핵심 퍼실리테이터	전공교수	전체 퍼실리테이션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학습내용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조 퍼실리테이터	보조진행자	학습과정에서 교수를 도와 수업진행을 돕는다.
보조 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 운영요원	수업 전 후의 준비물과 결과물을 점검한다.

4.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교육-학습안 예시(부록)

이론 뿐만이 아니라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실질적인 통일교육의 모델이 필요하다. 새로운 통일교육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례들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교육내용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일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례분석과 모델제시라고 생각한다. 특히 다양한 학습자 집단의 특성과 교과별 특성에 맞게 퍼실리테이션 통일교육방법론의 자료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화는 퍼실리테이션을 통일교육에 활용하려는 교수자에게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자신감을 제공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일반대학과 통일교육원에서 강의하였던 경험과 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한 학습자 강의자료와 교수-학습자 교수안을 부록1, 2로 첨부하였다.³⁰⁾

VI. 결론

4차 산업혁명은 교육영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개발은 개인들이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과거와 달리 교수자가 가진 정보를 학습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가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접근성의 향상으로 인해 일방향이 강의방식은 4차 산업 시대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다.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인식이 전환되면, 자기의 인식에 맞게 정보를 구성하는 자기주도형 방식이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해 보인다.

통일교육원도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소통하는 학습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통일교육을 선호한다. 이러한 새로운 학습방식에 대한 수요증가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전반적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결과이기도 하다.

30) 참고문헌 다음페이지에 첨부. 부록1: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한 학습자 강의자료, 부록2: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한 교수-학습자 교수안

새로운 통일교육을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일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화가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한 통일교육의 다양한 학습모델이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방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통일교육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퍼실리테이션 학습(learning facilitation)의 통일교육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하였다. 본 논문은 2장에서 퍼실리테이션 학습기법의 이론적 배경인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외부 실체의 존재를 강조하는 객관주의 학습이론과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비교한 후, 개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정에 따른 통일교육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은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특히 시대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미래비전과 현실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는 통일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4장은 퍼실리테이션의 개념, 효과,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5장은 3장과 4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통일교육원의 교과과정의 유형에 따라 퍼실리테이션 기법 적용방안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방법 및 학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첫째, 새로운 통일교육방법론의 현실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기존연구들은 통일정책과 교육의 연계성, 통일교육과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 통일교육의 담론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통일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맞는 통일교육방법론의 변화방향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둘째, 통일교육에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하기 위한 구성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기존 통일교육은 정보생산자의 입장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외부 실체를 모든 학습자가 동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만하면 된다는 객관주의 이론에 근거한 교육방식이다. 이와 달리 구성주의는 학습자들이 외부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통일과 관련된 정보도 주관적인 방식으로 인식한다고 가정한다. 개개인이 주관적인 방식으로 외부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학습방식인 퍼실리테이션을 통일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통일교육원의 실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퍼실리테이션 적용방법을 제공하였다.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별(전문과정, 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 글로벌통일교육과정) 학습자 집단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특성과 교과내용에 따라 퍼실리테이션 통일교육방법을 유형화하였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는 향후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교수자들이 현장에서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한 수업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논문은 통일교육원 내의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과 사회통일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미래연구는 퍼실리테이션의 통일교육 적용 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한 통일교육을 경험한 학습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퍼실리테이션의 교육과정별 적용한계 및 차별성 있는 적용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교육과정별(전문과정, 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 글로벌통일교육과정) 다양한 교과목에 따라 학습자들이 퍼실리테이션 교육방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연령, 성별, 과정, 직업군으로 나누어 설문조사와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참여관찰방식을 통해 통일교육원 교

수가 직접 학생들과 퍼실리테이션 교육방법을 실행해보고,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애.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간략한 고찰.” 『교육공학연구』 11.2, 1995, 48-63.
- _____.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대한 고찰.” 『초등우리교육』 (1999), 58-63.
- 권두승, “성인 교육자의 멘토링 척도개발과 교육적 시사점,” 『평생교육학연구』, 2003, 9 (2): 169-193.
- _____. 『성인교육자론』, 교육과학사, 2006.
- 김국현. 『통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 편견 교육』. 서울: 인간사랑, 2004.
- 김도태 and 이경화. “통일교육 개선방향.” 『통일연구논총』6.1, 1997, 1-22.
- 김창희. “제5장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분석과 활성화 방안.” 『통일전략』7.2, 2007, 157-189.
- 김창환. “통일 전 동, 서독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과 실상.” 『교육의 이론과 실천』8.1, 2003, 17-45.
- 박광기. “독일의 정치교육을 통해 본 한국 통일교육의 방향 정립.” 『대한정치학회보』18.2, 2010, 105-130.
- _____. “한반도 통일비전과 통일교육의 재인식.” 『정치정보연구』15.1, 2012.06, 187-214.
- 박광득, “제4장 통일교육 목표와 내용의 딜레마와 해결과제.” 『통일전략』13.3, 2013.7, 119-157.
- 박병철, and 박동국. “제3 장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전략』11.4, 2011, 77-113.
- 박영숙, et al. 『유엔 미래 보고서 2040』. 교보문고, 2014.
- 박인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구성주의 교수원리의 실현 매체로서 인터넷 고찰.” 『교육공학연구』 12.2, 1996, 81-99.
- 박찬석. “연구논문: 통일교육에 있어서의 민족, 평화, 시민에 대한 논의.” 『시민교육연구』33, 2001, 141-162.
- 변종현. “청소년의 통일의식과 학교 통일교육의 진화.” 『윤리교육연구』29, 2013, 165-186.
- 변창구. “제1장 한국 통일교육의 쟁점과 방향.” 『통일전략』10.2, 2010, 9-35.
- 백수정, and 이희수. “성인교육 퍼실리테이터 역량 개발.” 『평생학습사회』 8.3, 2012, 59-85.
- 서진원. “구성주의 학습기법의 발전방안으로서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2007, 341-356.
- 송정호, and 조정아.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정책과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평화학연구』10.1, 2009, 165-187.
- 안종배,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미디어와 교육』7.1, 2017.6, 21-34.
- 이연주, and 이희수. “농업교육강시를 위한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46.1, 2014, 27-47.
- _____. “퍼실리테이터의 성찰학습수준이 비판적 성찰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47.2, 2015, 123-148.
- _____. “퍼실리테이터의 비판적 성찰을 위한 이론과 실천의 만남.”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 47.4, 2015, 73-97.
- 이지경.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Learning: PBL)의 통일교육 방법론 연구: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학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서석사회과학논총』3.2, 2010, 95-133.
- 오일환.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29.2, 1995, 1995-12.
- 우평환. “통일교육의 구상과 실천과제: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평화학연구』10.1, 2009, 143-164.
- 윤기영, and 이미숙. “학교 통일교육지침에 입각한 유치원의 통일교육 구현 방향 모색.” 『유아교육연구』15.1, 1995, 59-77.
- 정경환. “제5장 통일교육과 한반도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14.3, 2014, 161-185.
- 정문성. “특집1: 세계화, 통일, 민주시민교육; 사회과에서의 협동학습전략.” 『시민교육연구』21, 1995, 259-277.
- 정민승, “평생학습 패러다임에서의 사회교육자: 위상과 역할,” 『평생교육학연구』, 2002, 8 (2) : 41-59.
- 조규락. “구성주의 기반의 학습이론 탐구.” 『교육공학연구』 19.3, 2003, 3-40.
-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16.2, 2007.12, 285-306.
- 추병환.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적 접근의 타당성.” 『통일문제연구』15.1, 2003, 103-125.
- 최양희, 고은영.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반한 디자인교육 방안 연구.” 『디자인 지식저널』28, 2013. 12, 185-194.
- 최영표. “통일교육의 성과 분석.” 『통일교육연구』4.1, 2004, 153-181.
- 하원준. “공공문화예술 콘텐츠의 사회공헌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역할 분석과 방향 제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2016, 64-69.
-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서울: 교육과학사, 2001.
-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1997, 1-96.
- 황윤한. “교수, 학습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 『초등교과교육연구』 2, 1999, 1-34.
- Aakhus, Mark, Mark Adkins, and Melissa Glynn. “Layers of learning: Facilitation in the distributed classroom.” *System Sciences*, Proceedings of the Thirtie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l. 2. IEEE, (1997).
- Bens, Ingrid. *Facilitating with ease!: A step-by-step guidebook with customizable worksheets on CD-ROM*. Jossey-Bass, (1997).
- Brüssow, Saretha. *A learning facilitation framework to enhance academic skills development among underprepared learners in South African higher education*. Diss. University of The Free State Bloemefontein, (2007).
- Cranton, Patricia. “Self-directed and transformative instruct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5.6 (1994): 726-744.
- Gow, Lyn, and David Kember. “Conceptions of teaching and their relationship to student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3.1 (1993): 20-23.

- Johnston, Alexandra K., and Robina S. Tinning. "Meeting the challenge of problem-based learning: developing the facilitators." *Nurse Education Today*, 21.3 (2001): 161-169.
- Kember, David, and Lyn Gow. "Orientations to teaching and their effect on the quality of student learning."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5.1 (1994): 58-74.
- Kaner, Sam. *Facilitator's guide to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John Wiley & Sons, (2014).
- Knowles, M. S., *The adult learner: The definitive classic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lsevier Science and Technology Books, (2005).
- Lakey, George. *Facilitating group learning: Strategies for success with adult learners*. John Wiley & Sons, (2010).
- McGill, Ian, and Anne Brockbank. *Action learning handbook*. Kogan Page, (2003).
- Mizoguchi, Riichiro, Pierre Dillenbourg, and Zhiting Zhu. *Learning by effective utilization of technologies: Facilitating intercultural understanding*. Vol. 151. IOS Press, (2006).
- Mohamad, Nabishah, et al. "Problem Based Learning Facilitation: New Challenges to Higher Education Educators." *International Medical Journal*, 16.4 (2009).
- Nadler, L. *Developing human resources*, Jossey-Bass, (1989).
- Pedler, Mike. *Action learning in practice*. Gower Publishing, Ltd., (2011).
- Rienties, Bart, Natasa Brouwer, and Simon Lygo-Baker. "The effects of online professional development on higher education teachers' beliefs and intentions towards learning facilitation and technolog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9 (2013): 122-131.
- Savin-Baden, Maggi. *Facilitating problem-based learning*. McGraw-Hill Education (UK), (2003).
- Steyn, Tobias Mostert. *A learning facilitation strategy for mathematics in a support course for first year engineering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Pretoria*. Diss. (2006).
- Straus, David, and Michael Doyle. "The architect as facilitator: A new role."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31.4 (1978): 13-17.

부록1: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한 학습자 강의자료 모델 (120분용)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목차

- | | |
|------------------------|------------------------|
| 1. 여는 대화- 수업목표, 순서, 방법 | 2. 탈냉전 시기 한반도 주변정세의 전환 |
| 3.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통일환경 | 4. 마무리 대화 |

수업목표

- 가.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 환경을 한국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나. 한국정부의 대응방향(한국의 주도적 역할가능성의 이해)과 우리의 일상 실천방안(패배주의 극복과 소통강화 방안)을 고민해본다.

아이스 브레이킹 및 조장선정

- 조장선정
 - 연령별 아이스브레이킹
 - 가위바위보/카드사용/보드게임
 - 조장역할: 시간조율, 발표자 선정
- 단어나 이미지 토크
 - 현재 한반도 정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Band 에 올리기.
 - 모둠원들에게 왜 그 이미지를 선택했는지 설명해주고, 이미지 제목을 하나 정하기

1. 여는 대화 (20분): 시청각 자료



모둠소개 및 말문 열기

키워드는?

전체적인 소감은?

나와 관련성은?

전체토의 1. 현재 국제사회는 단극, 다극, 양극인가? (20 분간)

1. 나는 세계를 (단극, 다극, 양극)으로 본다.
왜냐하면,
-
-
-

2. 우리 모듬은 (단극, 다극, 양극)으로 본다.
왜냐하면,
-
-
-

참고내용 1.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

-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후쿠야마(Fukuyama 1989)
-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미어셰이머(John Mearsheimer)
-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

참고내용 2. 미국, 유럽, 중국의 세력변화

- 2000년대 들어 미국의 9.11 테러와 연이은 테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미국과 유럽의 갈등, 글로벌 경제위기
- 유럽통합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정치의 중심축이 미중관계로 옮겨가고 있다.

모듬토의 1. 탈냉전기 한반도 주변질서 변화는 무엇인가?

1. 내가 생각하기에 한반도 주변질서 변화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미지나 단어로 표현 가능)
-
-
-
-

2. 우리 모듬이 생각하는 한반도 주변질서의 변화는?
-
-
-

참고내용 1. 미국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

2001년 9.11 테러는 국제정세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내용 2. 미중 간 동북아시아 주도권 경쟁

중국은 최근 들어 '책임있는 대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내용 3. 미일동맹 체제의 강화와 일본의 정상국가화

미일동맹의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이해된다.....

참고내용 4. 러시아의 동아시아 재등장과 역할 증대

러시아는 21세기 동아시아 역내 질서의 핵심주체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모둠토의 2.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통일환경(20분)

내가 생각하는 통일에 긍정 또는 부정적인 환경은 무엇인가?

- 미국

- 중국

- 북한

- 일본

- 러시아

- 미중일러 강대국 역학구조

참고내용 1. 한반도 주변의 중장기 시나리오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변화에 따라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모듬토의 3.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내가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 방법은?

참고내용 1. 힘의 종류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지역질서로 인해 동북아 질서는 미중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제기되어왔다....

참고내용 2. 네트워킹 중견국

한국의 통일전략을 위해서는 규범과 정체성에 주목해야 한다.....

마무리 대화

내가 가야할 길

- 한반도 주변환경을 다섯자로 정리하면
- 통일을 위한 우리의 실천방안

참고내용 1. 종합정리

첫째, 탈냉전기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의 특징은 미중간 주도권 경쟁, 미일동맹 체제의 강....

부록2: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한 교수-학습자 교수안 (120분)

교과명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학습목표		가.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 환경을 한국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나. 한국정부의 대응방향(한국의 주도적 역할가능성의 이해)과 우리의 일상 실천 방안(폐배주의 극복과 소통강화 방안)을 고민해본다.			
본시 수업의 특징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수업			
교수자료		강의 PPT	학습자료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단계	수업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자 활동	학습자 활동		
사전준비	관심 키우기 및 참여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특성과약(연령, 직업, 관심분야) - 모둠원의 균형구성(성별, 연령별) - 강의자료 준비(PPT, 강의노트) - 강의실 환경점검 (음향, 스크린, 적정온도) - 학습자료 점검 - 보조퍼실리테이터와 수업 설계안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료 점검 (사이버강의, 인터넷서치) - 사전공문에 준비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음. - 강의노트 사전 질문지 작성 (개인의 수업목표, 관련주제 질문사항) - 모둠확인 및 소속 모둠원들과 소통 시작 	최소 20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자료집 - 인터넷
수업도입 참여활동	흥미유발 및 동기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개 - 모둠원과 조장 확인 - 아이스브레이킹 과제 제시 및 적극적 참여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원간 상호소개 및 조장 선출 - 아이스브레이킹 활동 참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브레이킹 도구 (그림카드, 스마트폰앱, 포스트잇 등등) - 강의자료집
수업전개 강의	수업의 목표와 순서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소개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듣기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PPT - 강의자료집
수업전개 1차 모둠토의	첫 번째 논의 주제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주제와 방법에 대해 설명 - 토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둠 지원 - 편안한 토의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자료집에 주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작성 - 작성한 내용을 모둠원들과 상호토론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노트, 강의 PPT, 스마트폰앱 or- 포스트잇과 전지
수업전개 1차 토의 정리	토의주제 핵심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발표내용에서 중요한 지점 코멘트와 질문 - 발표 후 전체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모둠의 내용 경청 - 모둠별 토의내용 발표 	30분	
휴식					
	2차 주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소개강의 -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듣기 	10분	
수업전개 2차 모둠토의	2차 논의 주제 모둠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주제와 방법에 대해 설명 - 토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둠 지원 - 편안한 토의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자료집에 주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작성 - 작성한 내용을 모둠원들과 상호토론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노트, 강의 PPT, 스마트폰앱 or- 포스트잇과 전지
수업전개 2차 토의 정리	2차 주제 핵심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발표내용에서 중요한 지점 코멘트와 질문 - 발표 후 전체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토의내용 발표 - 다른 모둠내용 경청 	30분	
수업 마무리	오늘 수업의 주요내용과 핵심 메시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개인질문 제시 - 선택된 개인에 대해 실천 사항 발표 후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자로 오늘 주제 정리하기 - 주어진 주제로 각자의 실천 비전 만들기 	30분	